

도서관사회학 연구시론

-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위하여 -

A Proposal for the Formulation of Sociology of Library

- Toward an Epistemological Turnover on the Sci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

김정근 (Jung-Gun Kim)*

이수상 (Soo-Sang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 도서관사회학적 접근 |
| 2. 인식론적 기반 | 3.1 도서관사회학의 개념 |
| 2.1 문헌정보학의 본질 | 3.2 주요 연구영역 |
| 2.2 두 가지 인식론 | 3.3 연구방법 |
| 2.2.1 사회인식론 | 4. 결론 |
| 2.2.2 지식사회학 | |

초 록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은 1930년대부터 사회과학(또는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무와 기술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으로 인해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성은 점차 상실되었고, 대신 과학기술적인 입장이 강조되었다. 결국 문헌정보학은 주된 연구대상인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을 사회적 지식체제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사회과학적 이론과 철학을 도입하는 데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단계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위하여 도서관사회학이라는 연구영역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사회과학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식론으로서 사회인식론과 지식사회학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시론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접수일자 : 96. 11. 18

ABSTRACT

From the outse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field of discipline began as part of the social sciences (or applied social sciences) in the 1930s. However, due to the practicality and technology emphasized by functionalists, the social science characteristics deteriorated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ical aspect became more accentuated. Ultimatel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as not able to identify its main research subject of libraries and associated apparatuses as a form of social knowledge system, and could not help but neglect to induct and apply theory and philosophy from the social sciences.

In the present study, after an examination of social epistemology and sociology of knowledge, which are important epistemological foundations necessary f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cientific aspec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new research parameter called sociology of library was presented. The sociology of library will be a scheme for an epistemological turnover on the disciplin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은 학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과학의 학문인지 기술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었으며,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과학인지 기술과학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종합과학이라는 학제적 인식 또한 한국문헌정보학의 과학성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해방 이후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사회의 도서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이래로 줄곧 그와 같은 과학성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90년대의 전반적인 사정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전개된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한 성격규명의 노력이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각에서는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을 규정짓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1995년 10월 한국정보관리학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거기서는 ‘한국문헌정보학=정보학+서지학’이라는 도식에 따라 한국문헌정보학의 성격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짚어 보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90년대 들어 제시된 ‘한국적 문헌정보학’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정보학+서지학’이라는 도식이 암시하는 바는 기존의 전통적 도서관

학이 정보학과 서지학의 영역의 한 부분으로 해체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의 비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 단지 한국적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속에 나타나 있는 ‘사회과학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심화·발전시키는 연구영역의 하나로서 도서관사회학을 설정하여 이를 시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에 이 논의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전제로 출발하게 된다. 첫째, 필자들은 문헌정보학의 본질적 성격을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에 있어 인문학이나 과학기술적인 측면, 또는 종합과학적 특성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가미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게 된다. 인문학적 성격은 문헌정보학에 이론적·철학적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적인 성격은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관리나 처리 등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에 국한된 응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종합과학적 입장 또한 문헌정보학의 특수한 연구영역에 대한 거시적인, 다학문적인, 통합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육학의 본질이 사회과학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처럼 문헌정보학의 본질도 사회과학이며, 교육학이나 문헌정보학에 인문학이나 과학기술적 관점, 종합과학적 성격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둘째, 문헌정보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이 발생된 이후로 즐기치게 이어져온 하나의 인식론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단지 그와 같은 인

식론에 대한 논의가 보다 공론화되거나 깊이 있게 연구되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간의 문헌들을 통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특히, 한국문헌정보학을 염두에 둔 사회과학성의 의미와 인식론적 기반, 그리고 기존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접근틀인 도서관사회학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입장은 현단계 한국 문헌정보학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가 사회과학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외톨이식 학문보다는 우리 학문을 다시금 사회과학의 기반 위에 세우고 그 맥락에서 탐구영역도 개발해 내고 이론체계도 만들어 내며, 또한 연구방법을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도입한다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2. 인식론적 기반

2.1 문헌정보학의 본질

한국문헌정보학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대체로 문헌정보학은 70-80년대를 거쳐오면서 정보학 중심적 사고, 과학성의 본질의 전도 내지는 상실현상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김태승의 비판적 목소리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문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려는 학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목표에 달성하려는 노력과 방법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영역에의 편중과 학문적 본질의 이탈이다. 근래 우리 학문분야에서 만연하는 맹목적인 정보화 선호현상과 타학문의 기능주의적 현상을 우리 학문의 본질인양 착각하는 풍조가 문제다. ... 배타적 신실증주의가 우리 학문의 기초와 본질을 호도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 최근 국적없는 숭미주의적 학문도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신실증주의에 지배당하는 수난은 더 이상 사양한다. 문헌정보학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인 한은!"

그렇다. 문헌정보학이 견지하는 학문성의 핵심, 즉 학문적 본질은 사회과학임이 당연하다. 이 점은 우리 학문의 권위있는 학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인지되어 왔던 것이다. 외국의 버틀러(Pierce Butler)와 랑가나단(S. R. Ranganathan), 그리고 셰라(Jesse H. Shera) 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동의해온 부분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문헌정보학이 순수한 이론적 과학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응용사회과학을 의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왜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인식하여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문헌정보학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가, 학문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했기에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1) 김태승, "도협컬럼 :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34권 5호 (1993. 9.10), p.2

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충분한 대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문의 본질로서 사회과학성은 인정해 왔지만, 그 입장에서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데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문헌정보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나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가지 현상들을 사회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등 사회과학적인 시각을 도입하는 데 너무 인색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사이 문헌정보학은 보편적인 사회과학이 가지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의 필요성 또한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 사회과학성의 논의는 60-70년대부터 있어 왔으나, 기술성과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다루었기에 정보학이라는 강력한 기술학의 도입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주춤해져 버렸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한국적 문헌정보학을 내세우면서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다시금 사회과학이라는 틀속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처음부터 어떤 뚜렷한 논리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은 한국문헌정보학이 어느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적 인식의 범주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령 다음의 인용문같은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의 문헌정보학은 학문이라는 과학성의 의미를 단지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만 치중한 폐쇄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도 하나의 연구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문헌정보학의 연

구가 현장의 실천언어로서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바탕을 두어야 한다면 문헌정보현상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요인의 학문적 분석과 이론의 합리성의 규명도 나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론의 무비판적 도입에서 벗어나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문이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도입되어 그것이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조건의 구체적 대비분석과 실천적 적용,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지속해나갈 인적 집단의 노력이 요구된다.²⁾

좀 투박한 표현이지만, 위의 인용문은 문헌정보학이 기술중심의 응용과학적 입장을 너무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을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단순한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실체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문헌정보학은 사회과학의 범주내에서 한국사회의 도서관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론을 개발하며, 현장을 변혁시켜 낼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헌정보학의 본질은 사회과학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수상·윤현옥, “한국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한 고찰”, 학기논고집 1989- 1991 (1991), p.16. 이외에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 펴내고 있는 학기논고집, 제1집 (1991)-제6집(1996)에는 우리 학문을 사회과학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제연구에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실려있다.

주변의 사회과학의 분과학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더라도, 신문사나 방송국 등과 같은 사회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커뮤니케이션기술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기관들의 행위나 활동들을 사회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다지 역사도 깊지 않은 학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제법 학문적 위상을 확보해 내고 있으며, 학문의 사회적 실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교육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교실이나 학교의 내부활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누가 교육학을 사회과학이라고 할 것인가. 교육학 연구자들은 그와 같은 내부적이고 미시적인 관심과 더불어 외부적이며, 사회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가령 우리가 도서관 이용자연구를 한다고 할 때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도서관 이용행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존의 문헌정보학 범위안에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즉 잠재적 이용자들까지 관심을 확대시키는 일이나 도서관 이용을 통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이나 정보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해석해 내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도서관의 내부적인 업무나 기술적인 행위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 왔음을 자인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도 사회라는 외부를 쳐다보고, 또한 외부에서 도서관문제를 관찰한다면 도서관의 저발전문제라든지, 이론이나 철학의 빈곤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커뮤니케이션학이나 교육학이 사회과학적인 이론이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사회현상이나 자신들만의 개별현상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한 문헌정보학의 개별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이론이나 철학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2.2 두 가지 인식론

인식론의 문제는 한국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일반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이 생긴 이래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하나로서 제기되었던 이론과 철학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쉽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적 문헌정보학에 대한 여러 논의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회과학성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소략하게나마 살펴볼 것이다.

문헌정보학에 있어 사회과학성은 앞서 소개하였듯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지만, 그동안 논의된 대표적인 인식론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인식론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사회학이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다른 인식론들이 거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깊이있게 연구된

상태는 아니지만, 위의 두 가지는 다른 인식론들보다 문헌정보학의 토대를 설정하는 데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문헌정보학의 관심영역에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2.1 사회인식론

그 동안 문헌정보학은 자신의 주된 연구대상인 도서관이라는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지식체계(social knowledge system)'³⁾를 사회구조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관이나 물리적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이라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기술적 행위나 문헌정보의 조작적 활용에만 집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된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성 회복은 사회적 지식체계로서 도서관을 파악한 인식론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체로 그것은 총칭하여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이라 부를 수 있다. 사회인식론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접근인 사회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분야로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양식을 분석하고, 이어서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상정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⁴⁾ 결국 사회인식론은 인간과 사회라는 인식주체가 그들의 일상적 사회적 인식과정을 통해 얻게되는 각종 경험 및 앎의 체계를 지식이나 과학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제반 과정을 설명하

는 사회이론을 말한다.

문헌정보학에 있어 이와 같은 사회인식론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이간(Margaret E. Egan)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⁵⁾ 비록 체계적인 논리로 사회인식론을 정리해 내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학자로는

3) 도서관을 사회적 지식체계(또는 사회지식체계)로 정의한 것은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의 수집, 조직, 배포, 이용만을 다루는 사회기관으로 보지 않고, 도서관을 지식의 사회적 축적과 배포,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구조로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도서관봉사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봉사의 차원이기 보다는 개인이나 사회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사상을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하는데 도와주며,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어서우드가 공공도서관을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으로 파악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Bob Usherwood, *The public library as a public knowledge* (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Ltd, 1989). 지식과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은 크로포드와 고어먼의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에 관한 것만을 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도서관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문헌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록된 지식을 보존하고, 배포하고 이용하는 것을 다룬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지적으로 되도록 하며, 지식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며, 중국에 이르러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p.5.

4) 차인석, *사회인식론: 인식과 실천* (서울 : 민음사, 1987), p.i.

5) 이간은 자신의 논문이나 글에서는 사회인식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의나 대화를 통해 그것을 말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이간은 도서관과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Margaret E. Egan, "The Library and Social Structure", *Library Quarterly* 25 (1955), pp.15-22

쉐라(Jesse H. Shera)를 들 수 있다. 쉐라는 사회인식론이란 인간과 사회가 지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지식체계에 관한 이론(a theory of knowledge about how society knows as a whole)이며, 이는 문헌정보학의 이론적·철학적 원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우리는 그 동안 문헌정보학의 교육과 학문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쉐라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쉐라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한성택은 쉐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⁷⁾

쉐라는 그 어느 도서관 학자들보다 많은 상당수의 저술 등을 발표하였는 데 그것들이 미국 도서관계에서 확실히 정착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업적으로 크게 인정되지도 않은 채로 한때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론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여짐으로써 하나의 체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쉐라의 논문들은 대부분 도서관학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원론적 입장에서의 이론으로서 기술 중심의 미국 도서관계에서의 관심과 수용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저술들은 오늘날 도서관학의 통론 내지 입문적 이론으로서 도서관학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깊게 갖고 통독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⁸⁾

쉐라의 사회인식론의 핵심적 원리는 사회구조(social fabric)를 통해 유통되는 사상(thought)의 생산, 흐름, 통합, 소비 등의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그 원리를 통해 지식과 사회활동간의 상호과정이나 새로운 종합을 설명하

는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결국 쉐라의 사회인식론은 사회의 지식생산이나 유통에 관한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서직의 사회적 역할과도 같다. 물론 그것의 가장 실제적인 응용이 바로 문헌정보학이기에, 사회인식론은 문헌정보학의 인식론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인간이 생산해 낸 각종 문헌들(graphic records, recorded knowledge)의 사회적 활용에 있어 최적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비록 그것이 동화책에 몰두한 어린애든지,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학자이든지 상관없이 도서관 사서는 인간과 문헌들을 매개해 주며, 문헌정보학에서는 그것을 숙련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기록된 지식을 철저히 이

6) Jesse H. Shera,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 Wiley-Becker & Hayes, 1970), p.112.

7) 한성택에 의한 위의 연구 이외에는 한국에서는 쉐라연구가 없었다. 단지 쉐라의 주요 저서 중 하나가 윤영에 의해 번역된 것 뿐이다. Jesse H. Shera,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 역 (서울 : 구미무역, 1984).

8) 한성택, "셰-라(J.H.Shera)의 도서관학이론의 분석적 연구 - 서지이론과 사회인식론을 중심으로", *송의논총(송의여자전문대학)* 12집 (1989), p.124.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는 최초의 쉐라연구이자 마지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9) Jesse H. Shera, *앞의 책*(1970), pp.112-114.

10) 이러한 사회인식론은 자체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경제학, 정보이론 등 많은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 위의 책, p.113.

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다루는 지식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사회인식론은 문헌정보학의 적절한 지적 기반이며, 문헌정보학의 사회적 실천 인자인 사서의 역할은 그것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사서의 책임은 기록된 것, 즉 보울딩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가 그 사회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를 기술한 필사기록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서의 책임에는 사회의 조직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치, 그것의 실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서는 동시에 역사적이면서도, 현세적이고 미래를 예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및 사회에 있어서 인식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봉사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서는 그의 사회적 책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¹¹⁾

이러한 사회인식론은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논의된 바 있다. 최성진은 사회인식론의 연구성과들은 도서관봉사를 포함한 문헌정보학의 몇 가지 실용분야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사회인식론과 도서관 사이에는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사서들이 대개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은 도서관의 여러 봉사활동이 사회인식론의 기초 위에 마련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웨라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¹²⁾

사서에게는 도서관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술은 반드시 이론에 근거

하여야 하며, 그 이론의 일부는 사회인식론 기초 위에서 구성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국 사회인식론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구조를 인간의 문헌이용 행태에 알맞도록 조직한다면, 도서관 사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문제에 대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¹³⁾

- 개인적 인식 문제 -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 사회적 인식 문제 - 사회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과 개인의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변해 가는 사회심리학적 성격
- 지식의 발달과정이나 철학적 문제
- 현재의 서지메카니즘과 도서관시스템의 문제 -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현실이 인식론의 성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지적 기반이 되는 사회인식론은 도서관과 문헌정보라는 사회적 지식체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내는 방법론의

11) Jesse H. Shera, 앞의 책(1984), p.97.

12) 최성진, 도서관학 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pp.73-74. 한편, 그는 이러한 사회의 인식 논리에 대한 이해 위에서 결정된 도서관 봉사의 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이어야 적어도 이론상 최선의 것이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사회인식론의 역사가 짧고 그 이론체계도 불완전하므로 사서들이 효율적으로 도서관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의존할 만한 형편이 못된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13) Jesse H. Shera, 앞의 책(1970), pp.113-114.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가 이러한 지식체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역할이나 실제적인 활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며, 해석하고, 비판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2 지식사회학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독], Sociology of Knowledge[영])은 사회적 지식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1920년대 독일의 막스 셸러(Max Scheler)에 의해 생겨났으며, 여기에 만하임(Karl Mannheim)과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이 가세함으로써 독일사회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지식사회학은 독일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철학적인 배경에서 유래되었지만,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 유입됨으로써 사회와 지식간의 현실관계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20세기 초엽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논쟁 - 실증주의 사회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대표되는 반실증주의와의 방법론적 논쟁 - 을 계기로 후자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현상학이나 해석학 연구자, 사회비판이론가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어 사회철학의 주요한 관심영역이 된다. 즉, 사회과학 지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식사회학에서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지식사회학에서는 그러한 객관적 지식은 지식의 영역이기보다 '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그 관점에서 보면, 사회과학은 그러한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과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영역에서 지식사회학은 그다지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식사회학은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지식체계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가 가능토록 해준다. 그로버(Robert Grover)와 글래저어(Jack Glazier)에 의하면, 지식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탐구하는 지식사회학은 지식의 창조, 기록, 생산, 배포, 조직 및 활용에 대한 사회집단과 집단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 정보의 전달과 활용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한다.¹⁵⁾

또한 지식사회학은 지식의 성격 및 분류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며, 지식에 대한 비판적 해석(비평)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비평(서평)이나 이데올로기 분석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개척도 가능케 한다. 특히 지식의 성격 및 분류문제는 오랫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기본문

14) 물론 그 이전부터 지식사회학적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결정된다는 마르크스(Karl Marx)의 의식 속에서 이미 포착되어 있었으나, 지식사회학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학자가 셸러나 만하임 등이라는 것이다.

15) Robert Grover & Jack Glazier,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Qualitative Methods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ISA 7 (1985), p.249.

제의 하나이다. 주로 문헌분류의 영역으로 다루어 온 이 분야는 지식(또는 그것을 기록한 문헌)을 생물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를 구분해 왔으나,¹⁶⁾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서는 지식의 성격을 보다 다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식이 생성된 사회적 배경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문헌정보학 영역에 있어 지식사회학은 쉼라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식사회학이 자신의 사회인식론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서 지식의 사회적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 또한 그는 지식사회학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회인식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식론의 영역에 지식사회학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¹⁸⁾

3. 도서관사회학적 접근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는 문헌정보학을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문헌정보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뚜렷한 과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과학성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사회과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하자는 것이 필자들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된 사회과학성의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헌정보학이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로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일관된 논리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기에, 그와 같은 전통을 다시

금 현재 속에 구현해 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성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헌정보학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세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는 문헌정보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존의 도서관관리학(Science of Library Management)적 접근, 정보관리학(Science of Information Management)적 접근에 도서관사회학(Sociology of Library)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자 개별영역이기 보다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통합적 인식에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관점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은 사회과학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에다 인문학적, 과학기술적 인식론이나 방법론이 부가적으로 가미되어 통합학문으로서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과학기술적인 관련영역의 주변에만 머물고 마는 학제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합하여 문헌정보학, 특히 한국문헌정보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첫째, 도서관관리학적 접근은 도서관의 내부현상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개체도서관의 행정관리, 내부의 각종 업무처리나 기술관리, 사서나 이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16) Jesse H. Shera, 앞의 책(1984), pp.81-83.

17) Jesse H. Shera, 앞의 책(1970), p.129.

18) Jesse H. Shera, 앞의 책(1984), pp.96-97.

등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전통을 고수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학적 관심의 하나인 도서관 체계의 내부분제를 보다 깊이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서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학술연구를 할 수 있게 하지는 것이다. 아마 이 영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나 미래에도 문헌정보학의 중심연구 영역이 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의 서지학적(고전자료학적) 관심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문헌정보학 내에서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둘째, 정보관리학적 접근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정보학을 각종 문헌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제 더이상 컴퓨터과학을 따라가는 정보학, 컴퓨터과학과 경쟁하려는 정보학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과 관련되는 문헌정보의 처리나 관리문제나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에 있어 정보학의 도입은 정보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술적 차원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계는 최근 들어 더욱더 기술적인 심화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환상을 좇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기술맹신주의(technolust)¹⁹⁾에 함몰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사회학적 접근은 문헌정보학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탱해 주는 인식론적 기반과 학문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도서관사회학적 관점은 문헌정보학의 인식론적 기반이 되는 이론과 철학의 문제에 대한 접근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적 실천을 담보해 내어 해당 사회에서 학문적인 위상을 보다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도서관사회학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도서관사회학의 개념

도서관사회학(Sociology of Library 또는 Library Sociology)은 도서관과 사회와의 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영역이라고 우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사회인식론과 지식사회학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도서관의 목적, 제도, 방법, 역할, 과정, 기술 등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기술하게 된다. 이 경우 도서관현상은 사회적 단위의 하나가 되며, 인간 개인이나 사회의 제반 원리에 따라 해석되고

19) 기술맹신주의는 기술중심적인 사고 즉, 정보기술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학계의 주요한 담론 중의 하나인 미래도서관에 대한 기술맹신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좋은 참조가 된다.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앞의 책, pp.37-42. 김정근·이용재,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서관문화 37권 4호 (1996. 7.8), pp.4-29. 김정근·김종성, "계몽의 아침에 꾸는 악몽 - 도서관의 미래에 한국문헌정보학은 희망인가?", 도서관 51권 3호 (1996. 가을), pp.31-55.

설명된다. 결국 도서관사회학은 인간과 사회가 도서관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새롭게 형성해 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되므로 도서관사회학에서 다루는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체계가 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에서도 도서관현상을 사회문제와 관련시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와도 관련시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을 통한 사회참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도서관이 사회에 대해 일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문의 사회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학문을 좁은 영역으로 자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아마 도서관사회학이라는 연구영역을 최초로 제기한 학자는 독일의 문헌정보학자인 피터 칼스테트(Peter Karstedt)일 것이다. 그는 「도서관사회학(Studien zur Soziologie der Bibliothek)」이라는 책에서 도서관사회학을 역사사회학, 체계사회학, 지식사회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²⁰⁾ 그러나 이후 도서관사회학에 관한 논의는 더이상 문헌정보학 연구로서 심화·발전되지 못하였다. 한편, 도서관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문제는 '도서관과 사회(Library and Society)'라는 영역을 통해 줄곧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²¹⁾, 보다 체계적인 이론이나 방법이 개발되어지지는 못한 것 같다.

특정사회 도서관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헌정보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기에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제반 사회과학의 관점을 활용하여 이론을 개발하고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은 당위적인 요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사회의 도서관현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해져 도서관의 사회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헌정보학의 사회적 유용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의 내부현상이나 정보처리 및 관리기술에 치중함으로써 도서관과 정보 현상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종 도서관문제는 사회문제의 하나가 될 수 없었으며, 도서관이라는 단위기관의 내부문제에 치중한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주된 연구테마로 삼아 왔다. 이것은 문헌정보학이 실무기술을 강조하는 응용기술적 특성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탓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서관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설명하고 해석해 내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정립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20) Peter Karstedt, Studien zur Soziologie der Bibliothek (Otto Harrassowitz, 1954); 加藤一英 河井弘志 역, 圖書館社會學 (日本圖書館協會, 1980).

21) 이 영역에 있어 주요한 연구사례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Bob Usherwood,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Jesse H. Shera, 앞의 책(1984).

· A. R. Rogers & Kathryn McChesney, The Libraries in Society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1984)

· 김세익, 도서관과 사회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6).

특히 위의 사례 중 어셔우드와 셰라의 연구는 여기서 제시하는 도서관사회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서관사회학은 문헌정보학의 한 영역이자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공공지식이라는 사회적 지식체계를 다루는 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기에 도서관사회학은 문헌정보학의 기초학문이며, 동시에 도서관문제를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보는 실천학문이 된다. 특정 사회의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심리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목적,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설명해냄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사회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아울러 도서관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도서관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와 도서관의 상호관련성을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분석기술하여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비록 도서관사회학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 사회과학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 시도는 이전부터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였다. 에스터브룩(Leigh Estabrook)에 의하면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 이론과 방법의 적용은 적실성이 있는 것이지만 사회학 연구가 문헌정보학 연구에 영향을 주지 못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²²⁾

첫째, 대부분의 학제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문헌정보학과 사회학 두 분야 모두에 정통하는 르네상스적 학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학 연구를 도서관 연구에

적용할 경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성에 대한 연구와 전문직업에 대한 연구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문헌정보학자는 사회학자가 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학의 결과들을 적용하기도 힘들게 된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적 방법과 이론이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과 이론구성에 적용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지적해 두고 있다.

한편, 부쉬먼과 카이본(John Buschman & Michael Carbone)은 교육사회학 특히 신교육사회학(New Sociology of Education)을 문헌정보학에 적용하려고 하였다.²³⁾ 문헌정보학 연구에 사회과학적 관점을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여 볼 수도 있겠지만, 하리스(Michael H. Harris)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연구방법의 문제는 기존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방법론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하겠다. 하리스는 미국문헌정보학이 '기능'을 중심으로

22) Leigh Estabrook, "Sociology and Library Research", *Library Trends* 32 (Spring, 1984), pp.461-462.

23) John Buschman & Michael Carbone, "A Critical Inquiry into Librarianship: Applications of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Library Quarterly* 61(1) (1991), pp.15-40.

24) Michael H. Harris, "The Dialectic of Defeat: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4 (Winter, 1986), pp.522-525.

25) 김세익, 앞의 책.

출발하여 통계적 방법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주류였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이러한 실증주의를 넘어 문헌정보학 연구활동을 둘러싼 인식론적, 규범적 논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의 문헌정보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²⁶⁾

첫째, 역사나 사회과학에서 얻어진 사실과 이론을 통합하는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가치중립적이고 초역사적인 과학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reflective) 경험하는(empirical)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연구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변증법적(dialectical)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과 사회'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김세익²⁶⁾, 유경숙²⁶⁾, 박인웅²⁷⁾ 등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²⁸⁾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들이 한국의 도서관문제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분석하고 이론화시켜내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한편, 도서관사회학의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저작권법 문제, 국제적 지식이동의 문제, 정보중속의 문제, 지역간 정보불평등의 문제, 문헌비평 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제법 있어 왔다. 특히 도서관의 저작권법과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 왔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국가간 또는 지역간 지식이동의 문제³⁰⁾, 정보중속이나 지역간 정보불균형 문제³¹⁾, 문헌비평에 대한

- 26) 유경숙, "사회변천과 도서관 역할의 변모", 논문집(부산산업대) 7권 1호 (1986. 3), pp.341-358.
- 27)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 21집 (1994), pp.291-323. 특히 박인웅은 도서관사회학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생산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강의를 통해 도서관사회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8) 한국에서 수행된 '도서관과 사회' 연구성과에 대한 색인은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박준식·이애란, 한국문헌정보학색인 : 1975-1992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4), pp.118-123.
- 29) 이 분야에 있어 주요 연구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김향신, "저작권법에 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11집 (1984), pp.69-99.
 - 이순자,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제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 OCLC와 LC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21집 (1994), pp.325-361.
- 30) 국가간 또는 지역적 지식이전과 정보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동방학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3집 (1989), pp.1-27.
 - 송정숙, "한국에서「大學章句」의 수용과 전개양상", 서지학연구 56집 (1990), pp.331-353.
 - _____, "한국에서「中庸章句」의 수용과 전개양상", 서지학연구 10집 (1994), pp.553-576.
- 31)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 이제환, "한국과학자들의 해외정보 의존도 - 그 요인 및 결과", 도서관학논집 20집 (1993), pp.317-349.
 - _____, "정보중속과 정보개발의 상관관계 - 한국을 case로 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집 (1994. 12), pp.229-263.
 - _____, "지역간 정보불균형의 현황 및 대책", 정보통신연구보(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7집 (1995), pp.247-270.

연구³²⁾는 최근 들어 한 두 편씩 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물론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젊은 사서들의 간절한 요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며, 아울러 도서관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함께 숨쉬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회기관이다. 즉 이는 도서관은 언제나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한 시대의 문화적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며, 시대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시대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도서관을 오직 기능적인 측면의 기관으로만 이해하여 도서관의 역동적 기능을 왜곡·축소하고 있다. 즉 근대국가로서의 독립을 유도하고, 자유시민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며, 우리 고유의 문화적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문화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나라 도서관을 오직 왜곡된 사회발전의 들러리로 전락케 하였다.³³⁾

3.2 주요 연구영역

도서관사회학은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형성되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체도서관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결국

도서관사회학은 특정사회의 개체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사회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제반 사회과학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사회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과제를 통해 특정사회의 도서관 문제를 기초적이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이론과 철학'의 연구영역으로서 사회적 지식체계로서 도서관이 성립되는 각종 이론이나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인식론과 지식사회학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인간, 도서관과 사회에 관련된 각종 사회이론을 도서관과 관련시켜 연구하게 된다.

둘째, '도서관의 사회학'에 관한 연구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기초를 규명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서관의 역할과 목적을 위

32) 문헌비평 또는 서평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좋은 사례가 된다.

· 이천효, "「법철학」의 근본이해를 위한 비평적 서평", 도서관학논집 23집 (1995. 겨울호), pp.471-503.

· _____, 현대문헌비평의 해부 (서울 : 영미, 1996).

또한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팀의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1945-1995" (교수신문 (1996. 4. 8), 부산일보 (1996. 4. 23), 부대신문 (1996. 8. 26, 9. 2, 9. 16, 9. 23)의 '탈식민성 담론연구' 관련기사 참조)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33) 전국사서협회, "창립선언문"(1990. 10. 9)의 일부.

한 각종 제도나 정책, 사회구조 등을 연구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을 사회와 관련시켜 연구하게 되므로 도서관의 저발전문제, 도서관정책개발, 도서관과 사회구조, 지역사회연구, 도서관운동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

셋째, ‘(문헌)정보의 사회학’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문헌)정보의 생산, 구성 및 조직, 처리 및 관리, 비평 또는 평가, 사회정보기술 환경, 정보저작권 문제, 정보공개 및 보호의 문제, 국가간 또는 지역간 지식이동의 문제, 정보종속의 문제, 정보불평등의 문제, 정보의 정치·사회적 문제 등 도서관의 정보관련 문제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이었던 서지통정이나 주제분석을 포함하여, 지식체계와 관련된 각종 연구(지식의 역사, 분류, 형성과정, 지적 자유 등)도 가능하다.

넷째, ‘이용자의 사회학’으로서 여기서는 사회계층과 도서관의 관계, 정보불평등 및 갈등 문제, 이용자 요구분석, 이용자의 정보화과정,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문제 등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사회작용에 대해 주로 연구하게 된다. 이 문제는 기존의 이용자연구를 보다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연구외연을 확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사서직의 사회학’에 관한 영역으로서 도서관운영의 주체인 사서직의 윤리, 역할, 전문성, 사회성 등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고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사회학은 사회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위상을 주로 다루게 된다.

위에서 열거된 것은 도서관사회학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연구영역들을 적어본 것으로 여기에 보다 다양한 연구영역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서관사회학의 주된 역할은 문헌정보학 연구영역의 확대 뿐만 아니라 제반 연구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패러다임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3.3 연구방법

도서관사회학이 실천성과 학문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도서관문제에 접근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현상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두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도서관사회학 안에서 도서관문제를 다루는 자생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타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맥락에서 도서관문제에 접근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추출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도서관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도서관문제의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서관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도서관사회학도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자생적인 연구방법보다 사회과학의 접근들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연구방법은 도서관사회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던 문헌정보학 전체의 연구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대체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 있어 이러한 이론과 방법은 실증적 접근, 해석적 접근, 그리고 비판적 접근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³⁴⁾ 먼저 실증적 접근은 초기 사회학자인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에서 유래되어 밀(J. S. Mill), 스펜서(H. Spencer), 뒤르켐(E. Durkheim), 파슨즈(Talcott Parsons)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증주의 사회과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지식을 경험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구상해 내기 때문에 경험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실증적 접근에 관련된 주요한 사회이론은 유기체론(system theory),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 theory),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 합의이론(consensus theory)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조직이나 체계를 구조와 기능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사회이론으로서 현대 사회과학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적 접근에서는 합리적인 장서구성, 능률적인 업무처리, 효과적인 정보봉사 등 도서관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증적 접근에서는 도서관을 사회구조나 기능의 하나로 파악하여 전체로서의 사회와의 관련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문헌정보학은 한동안 도서관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자족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 학문에 있어서도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버틀러가 제시한

과학적 연구, 즉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950-60년대 사회과학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역할하게 되는 실증주의는 문헌정보학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하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서, 특히 연구자집단은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정설(prevaling orthodoxy)이며 발전된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식론인 실증주의라는 사이렌 소리에 매료되었다.³⁵⁾

또한 하리스는 실증주의 인식론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간에 어느 정도의 주류를 점하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학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과학이다. 따라서 과학의 방법론적 절차는 도서관학에 적용가능하다. 계량적 측정과 수치는 과학적 연구의 본질이며, 복잡한 현상들은 그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하여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광의의)은 일반적인 법칙

34) 이외에도 기능적 접근과 해석적 접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등으로 이분법을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35) Michael H. Harris, "State, Class, and Cultural Reproduction: Toward a Theory of Library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Librarianship* 14 (1986), pp.218-219.

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들의 복합체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법칙과 이론을 발견하는 것은 연구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셋째, 이러한 법칙들이나 이론들과 실천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도구적이다. 즉, 법칙과 이론이 한번 들어맞게 되면, 설명, 예측 및 제어가 가능하며, 단지 이론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현상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 도서관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있어 엄격한 "가치중립성(neutrality)"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한다.³⁶⁾

해석적 접근에서는 실증주의가 사회과학적 지식의 과학성·합리성·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도서관과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개체도서관이나 도서관 활동 등 작은 단위의 현상을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질적연구로 대표되는 해석적 접근은 해석학, 현상학 등을 배경으로 하는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문화기술법(ethnography),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이해(verstehen), 자연주의(naturalism) 등에 방법론적인 근거를 두게 된다. 이것은 실증적 접근으로 파악되는 기존의 도서관 연구방법이 많은 이론과 지식을 생산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성에 따라 질적연구방법이라는 기치밑에 새로운 시각의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또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조류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보다는 다소 늦게 8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연구방법이다. 최근 들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 해석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앞서 언급된 하리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³⁷⁾ 국내의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김정근과 이용재의 논문을 들 수 있다.³⁸⁾

마지막으로 비판적 접근은 도서관문제를 사회변혁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대체로 마

36) Michael H. Harris, 앞의 글(1986), pp.219-220.

37) 대표적인 외국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J. D. Glazier & Ronald R. Powell,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 Library Unlimited, 1992).
- R. Grover & J. D. Glazier,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Qualitative Methods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ISR* 7(3) (1985), pp.247-260.
- Daniel Benediktsson, "Hermeneutics : Dimensions toward LIS Thinking", *LISR* 11(3) (1989), pp.201-234.
- Raya Fidel, "Qualitative Methods in Information Retrieval Research", *LISR* 15 (1993), pp.219-247.
- Joseph P. Natoli, "Librarianship as a Human Science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Library Research* 4 (1982), pp.163-172.
- Amusi Odi, "Creative Research and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3 (July, 1982), pp.312-319.
- Constance A. Mellon, "Library Anxiety -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7(2) (March, 1986), pp.160-165.
- Karen P. Smith, "Diversity and Direction -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Center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Fall, 1990), pp.91-112.

38)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24집 (1996. 여름), pp.107-161.

르크스주의(Marxism)나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적 입장에서 갈등이론(conflict theory), 재생산이론(reproduction theory),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등을 이론적 기초로 삼는 급진적 패러다임이다. 비록 비판적 접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리스는 사회과학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문헌정보학에서 미해결된 유사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도서관서비스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³⁹⁾

어떠한 접근방법이든 특정사회의 도서관문제를 설명·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에서는 과학적 연구에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실증주의적 접근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실증적 패러다임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에 접근하여 문헌정보학의 외연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적 패러다임이나 비판적 패러다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성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반을 살펴보고, 도서관사회학이라는 연구영역을 시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도서관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주장한데는 몇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드넓은 황

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최초의 삽질을 하는 심정임은 숨길 수가 없다. 연구를 하게 된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우리 분야의 '이론과 철학 부재' 문제에 대해 그것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기에 도서관과 인간 또한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된 주요 인식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사회과학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근거와 접근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우리 학문의 사회과학성의 의미,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등을 통해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살펴보게 되었다.

셋째, 결국 문헌정보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나 정보만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지식의 역할과 그것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구조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넷째, 또한 미래도서관으로 대표되는 기술우위의 연구(교육)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특히 기술맹신주의에 빠져 도서관을 포기하고, 사서이기를 거부하는 일부 몽상가들에게 도서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다시금 주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앞으로 문헌정보학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인간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

39) Michael H. Harris, 앞의 글(1986), pp.211-252.

는 ‘인간과 사회중심의 문헌정보학’으로 보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도서관사회학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글을 끝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1987년 미국도서관협회 하계대회(ALA Summer Conference)에서 ‘이른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과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것을 끌어안은 대신, 도서관(libraries)과 도서관직(librarianship), 그리고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을 저버린 책임이 도서관학교(library schools)에 있다’⁴⁰⁾고 규탄한 사실이 있음을 이 글의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0) Bob Usherwood, 앞의 책(1989), p.132.